

# 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 맨 이재명 “우리는 드림원팀”

## 민주 선대위 대규모 출범식

이낙연 “경쟁했어도 하나 될 때”

정세균 “우리 모두가 이재명”

위드 코로나 499명 대형 행사

더불어민주당의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원팀 선대위’를 거듭 다짐하는 무대였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인사 말에서 “민주당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원팀 민주당’, ‘드림팀 선대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계파도 조직도 없이 오뎅이처럼 뭉쳐뭉쳐 걸어온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도 지지 연설에서 일제히 ‘원팀’을 강조하며 당과 후보가 하나가 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가장 먼저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민주당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끝까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 전국 당원동지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됐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앞장서고 우리는 각자 제 할 일을 국민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처절하게, 치열하게 해나가면서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 정의로운

사회대전을 국민에게 약속드리고 반드시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합은 승리를 부르고 혁신은 현실을 만든다. 승리를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고 쌓였을 때만이 우리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저부터 이재명이 승리하는 길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외쳤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과 함께 약자를 위한 정당, 미래를 위한 정당, 만들어가는 정당이 돼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앞장서겠다”며 “원팀을 넘어 ‘빅팀’, ‘빅팀’을 넘어 ‘원팀(승리하는 팀)’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각 지지 연설이 끝날 때마다 일일이 경선 주자들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다”며 경선 후보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이 후보가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일지”라고 묻자 좌중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가 쏟아졌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 시작 전 이 후보는 H.O.T의 노래 ‘빛’으로 시작한 무대에서 어린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등장했다.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 인권 변호사까지 이 후보의 인생을 담은 영상이 희망적인 가사와 함께 상영됐다.

이 후보는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으나 행사가 시작하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차담 뒤 선물로 받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낮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경선후보 후원회장단을 초청,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낙연 후보 송기인 후원회장, 이재명 후보 강금실 후원회장, 추미애 후보 장영달 후원회장, 송영길 대표, 박용진 후보 안광훈 후원회장. /연합뉴스

이날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D 등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날부터 적용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최대 499명 참석 허용)에 따른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입구에서는 KF94 등급 마스크를 나눠줬고, 취재진은 입장 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들은 특별 제작한 파란색 마스크와 파란 스카프를 착용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송영길, 경선후보 후원회장 초청 오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대선 경선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들과 만났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 이낙연 전 대표 측 송기인 신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측 장영달 전 의원, 박용진 의원 측 안광훈 신부와 오찬을 했다.

송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원회장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잘 뒷받침해 달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세력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이야말로 대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우선 갖춰야 할 조건”이라며 “내 분의 (후원회장) 어르신께서 먼저 나서주셨다”라고도 했다.

추미애 측 장영달 전 의원은 오찬에 앞서 “보름 전쯤에 송 신부님에게 후원회장님들 고생하셨으니 점심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 자리가 마련됐다”며 송 대표를 향해 “경선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정부’ 7번 언급·부동산 사과...문 정부와 차별화?

###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 연설

“민주정부 부족한 것 채우겠다”

1호 공약 ‘성장의 회복’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대선의 본진 역할을 할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를 수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D)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7번 언급했다.

같은 5000자 분량으로 작성됐던 지난달 1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 차례 등

장에 그쳤다. 특히 부동산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고,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이날 연설을 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아울러 ‘원팀 선대위’ 출범으로 경선 후유증을 극복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도 나

온다. 당 관계자는 “선대위의 공식 출범으로 비로소 ‘이재명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라며 “당의 모든 전력은 이제 이 후보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하겠다”며 대선출마 선언 이후 줄곧 언급해 온 ‘청출어람론’도 곁들였다.

전임 민주정부와의 무조건적 차별화가 아닌 ‘발전적 계승’을 강조,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차담 뒤 선물로 받은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연설한 것도 발전적 승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이재명, 이낙연측 의원들과 만찬 회동

### 원팀으로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설촌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과 ‘소맥’ 만찬 회동을 했다.

선대위 인선을 1차로 발표한 뒤인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중국집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는 설 의원 외에 홍영표·김종민·신동근·최인호·이병훈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참석 의원들은 시작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원

팀’으로 선거 승리를 하자고 다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 의원들은 또 당내 포용의 필요성과 함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공약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 후보는 중도층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또 자리에서 혁신 성장 필요성이 거론되자 유럽의 복지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성장의 결과는 모두 공평하게 나누거나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이 후보는 2일에는 경선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도왔던 김영주·안구백·김교승 의원 등과도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흥부제전위원회**

# 제29회 흥부제

흥부가 선물하는 건강과 대박 행운을 만나자!

## 건강열고, 대박열고! 흥부대박길 걷기 챌린지

흥부대박길을 걷고 미션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대박행운이 가득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2021. 11. 6.(토) ~ 11. 30.(화)

**걷기코스** 흥부대박길(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381-13)

**참여방법** 미션 수행시 자동 참여

**미션 1** 지정코스 걷기수행 (성산마을-자재마을 5.75km)

**미션 2** 사진인물 (① 지정코스 사진과 흥부사인 등록 ② SNS 후기 작성 및 태그 등록)

**경품내역**

- 남원예촌 숙박 패키지 상품 6인실(80만원 상당) × 1명
- 전통 장인 옷칠 목기세트(50만원 상당) × 2명
- 남원예촌 숙박 패키지 상품 4인실(30만원 상당) × 3명
- 남원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식품세트(20만원 상당) × 20명
- 한복체험 화인당 이용권(5만원 상당) × 20명

**행사문의** 흥부제전위원회 063-620-5774